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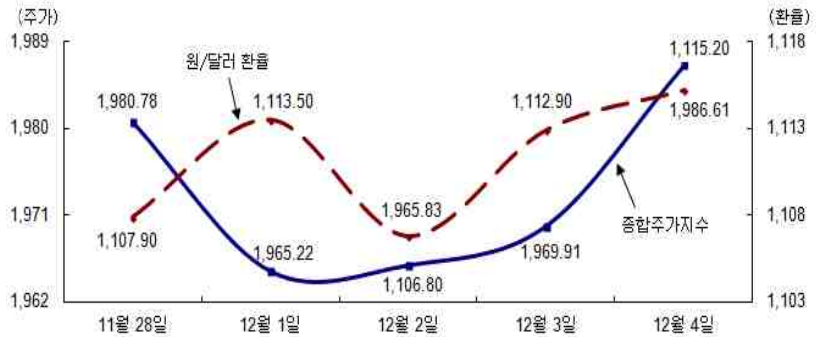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8~12.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한국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천 용 찬 연구원 외 (2072-6274, junius73@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 ■ 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

최근 한중 원-위안 직거래 개시, 상호 교역량 확대 등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일 뿐 아니라 국내 여행수지 흑자 최대 기여국인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 ■ 국내경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특징

국내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를 교역, 직접투자, 부가가치, 여행수지, 금융시장 등 5대 부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소재·부품의 3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對중국 수출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급증, 중국이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체 소재·부품 수출 총액 중 對중국 수출 비중은 13.2%에서 35.3%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둘째**, 중국의 對한국 투자가 서비스업에만 90%가 몰리고 있다.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10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투자업종별로 보면 2013년 현재, 對한국 전체 직접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4%, 90%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고 있다. **셋째**, 국내 제조업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10.3%로 확대되었다. 1995~2011년 사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 내 자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 기준 섬유직물 분야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는 20.9%로 가장 높고, 전기·광학기기 및 화학 분야도 각각 12.8%, 12.3%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가속에 힘입어 인해 국내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속도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미국, EU 등에 대한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적자폭이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여행수지에서 2013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2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이 우리의 최대 여행수지 흑자 기여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를 제외하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3년 기준으로 114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체 경상수지의 14.3%에 이른다. **다섯째**,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 예금 비중이 33%로 급증하고 있으며,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중국자금 비중도 27%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중간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로 국내 거주자 위안화 예금이 217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중국자금이 2014년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3조 2,250억 원에 달하는 등 중국 외화 및 자금의 국내 유입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중성장 시대 진입, 산업경쟁력 제고, 소득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제조업의 對中 투자 러시(rush)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는 물론,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한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수지의 지나친 對中 의존 및 국내 금융시장의 위안화 경제권 연동화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최근 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극 활용하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현재 발효 중인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적극 개발하는 등 국내 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동력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투자규제 완화와 친기업정서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 가속 등을 통한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다양화 등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안화 교환편이성 제공 등으로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 기회 적극 활용해야 한다.

## 1. 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

○ 최근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향후 국내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문제점 확대 등 우려점도 동시에 상존

### - 최근 한중간 경제교류 및 협력이 빠르게 진전

- 한중간 경제교류는 지난 199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수교를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시작함
- 2004년에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민간 연구 개시를 합의
- 2014년 7월에는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협력을 합의, 11월 10일에는 한중 FTA를 타결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빠르게 진전

### - 하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對중국 의존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 확대도 우려

- 중국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1위, 국내 최대 여행수지 흑자국 등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성이 지속 확대
- 최근에는 중국자금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가속되면서 국내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도 점차 확대

< 한중간 경제협력 및 성과 >

구분	회의	성과
1992년	- 한중 정상회담	- 한중 수교
2004년	- ASEAN+3 경제장관회의	- 한중 FTA 민간 연구 개시 합의
2014년	- 한중 정상회담 (7월)	- 원-위안직거래 합의
	- APEC 회의 (11월)	- 한중 FTA 체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경연 정리.

< 對중국 경제교류 수준 >

구분	규모	의미
對중국 수출	1,061억 달러	- 수출대상국 중 1위
對한국 투자	10억 달러	- 외국인직접투자국 중 5위
對중국 관광수지	20억 달러	- 국내 여행수지 흑자의 최대 기여국가
채권·주식	272억 원	- 국내 유입 외국인 자금 중 5번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對중국 수출, 對한국 투자, 채권·주식 등은 2014년 1-9월 누적, 관광수지는 2013년 기준.

## 2. 국내경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특징

### 1) 국내경제의 對중국 5대 의존성

#### ① 對중국 교역 : 수출의 26.1%, 소재부품 수출의 35%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

-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약 1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하면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대폭 상승

· 1992~2013년 사이,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중국 비중은 1992년의 3.5%, 4.6%에서 2013년 26.1%, 16.1%로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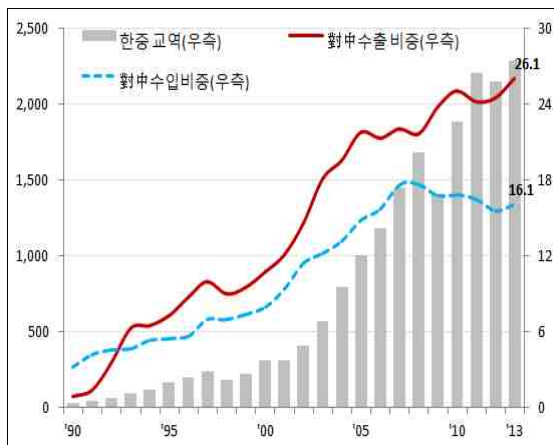
· 對중국 수입증가율은 최근 6년간 둔화되고 있지만, 對중국 수출증가율은 추세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 무역대상국 순위를 볼 때, 중국은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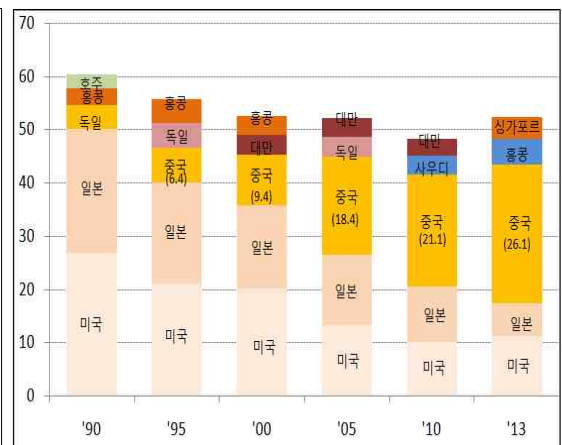
· 동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부상

< 한국의 對중국 교역 추이 >  
(억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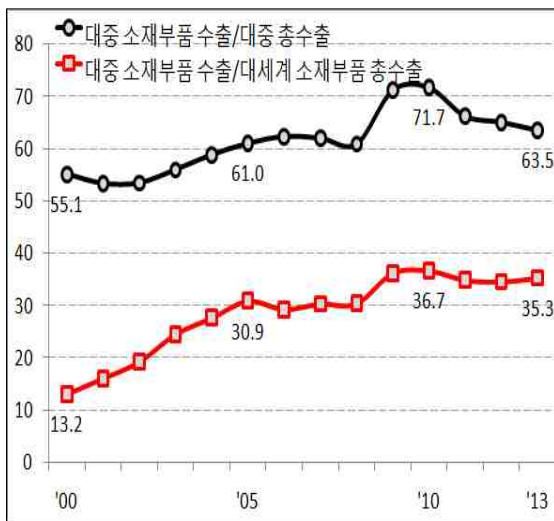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 더욱이, 중국에 대한 소재·부품 수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중 전자, 전기기계, 수송기기 등 고기술 분야의 의존성이 대폭 확대
- 지난 13년 간 한국의 對세계 소재·부품 총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지속 확대
  - 對중국 소재·부품 수출은 지난 2000년 약 102억 달러에서 2013년 926억 달러로 연평균 18.5%씩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소재·부품 수출 중 중국의 비중도 지난 2000년 13.2%에서 2013년 35.3%로 급증
  - 또한, 2005년부터 對중국 수출총액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소재·부품 수출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
  - 최근 3년간 그 비중이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소재·부품 분야별 對중국 수출을 볼 때, 2000~2013년 사이 전기기계, 전자 등 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이 대폭 증가
  -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중국 섬유,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 저기술 분야의 수출비중은 감소
  - 반면, 동기간 전기기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기 등 고기술 부품 분야에서의 수출비중은 대폭 확대됨

< 한국의 對중국 소재부품 수출 추이 > (%)



< 소재·부품 분야별 對중국 수출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0년	2013년
소재	섬유	847 (8.3)	1,042 (1.1)
	화학제품	3,621 (35.6)	15,100 (16.3)
	고무·플라스틱	230 (2.3)	1,590 (1.7)
	비금속광물	122 (1.2)	334 (0.4)
	제1차금속	1,120 (11.0)	4,218 (4.6)
부품	조립금속	79 (0.8)	685 (0.7)
	일반기계	537 (5.3)	4,745 (5.1)
	컴퓨터 사무기	672 (6.6)	2,063 (2.2)
	전기기계	570 (5.6)	11,898 (12.8)
	전자	2,268 (22.3)	41,910 (45.2)
	정밀기기	39 (0.4)	2,846 (3.1)
	수송기기	67 (0.7)	6,210 (6.7)
전체 소재부품		10,172 (100.0)	92,6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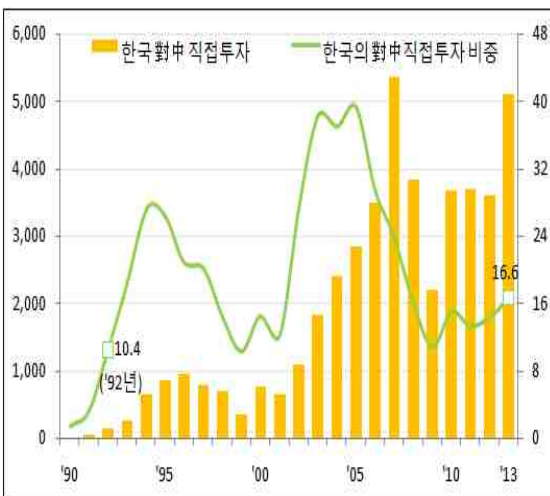
자료 :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② 對한국 직접투자 : 90%가 서비스업에 집중

- 韓中 상호간 직접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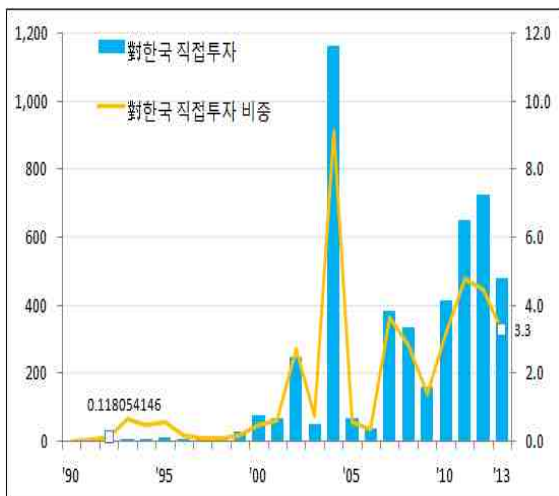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의 1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로, 연평균 19%의 속도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도 1992년 100만 달러에서 2004년 약 12억 달러로 급증하다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증가
- 반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3% 수준에 그침

<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추이 >  
(백만 달러) (%)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주 : 투자금액 기준.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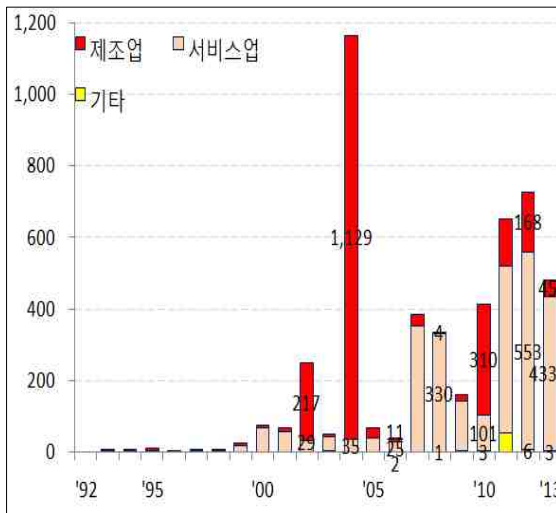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주 : 신고금액 기준.

-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업 직접투자는 1992년의 69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약 4억 3,300만 달러로 급증
- 전체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90.0%로 투자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전환
- 한편,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2010년의 74.9%에서 2013년에는 9.4%로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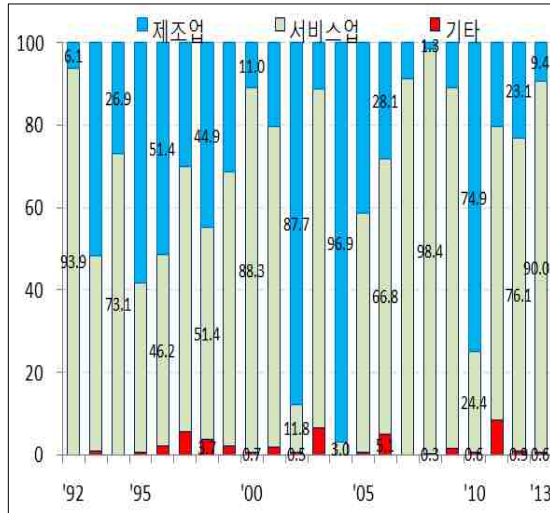


< 중국의 對한국 산업별 직접투자 금액 >  
(백만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신고금액 기준.

< 중국의 對한국 산업별 직접투자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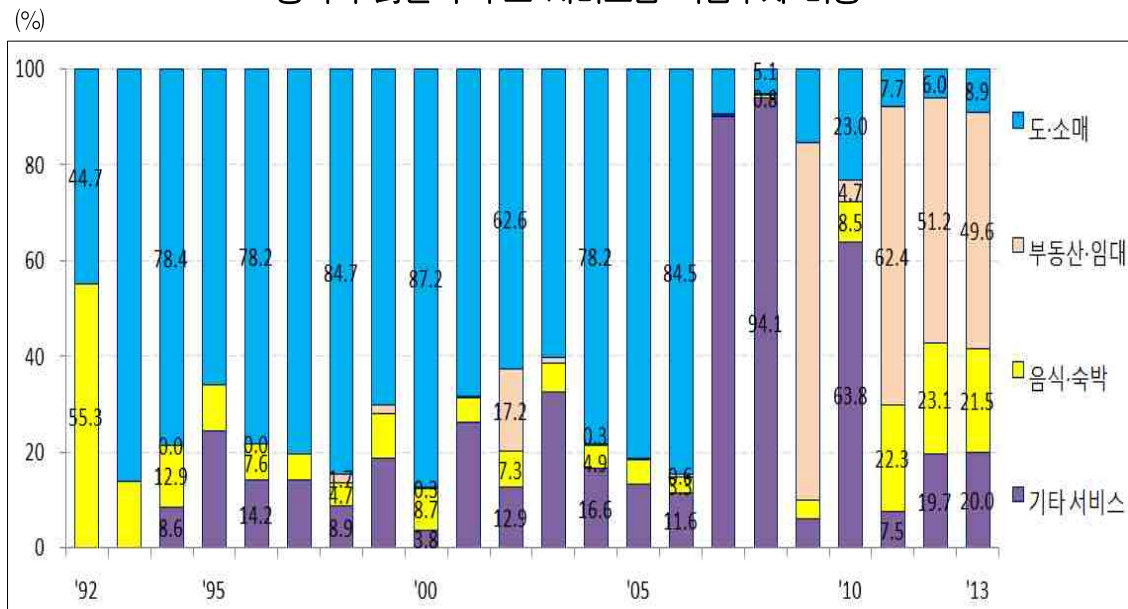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경연 계산.

- 특히, 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 음식·숙박업 등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

- 2013년 기준,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임대업 (49.6%), 음식·숙박업(21.5%), 도·소매업(8.9%) 순으로 나타남
- 시기별로 볼 때, 2007년 이전까지는 도·소매업 위주, 최근 3년간은 부동산·임대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

< 중국의 對한국 주요 서비스업 직접투자 비중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③ 부가가치 창출 : 對중국 의존도 10.3%

○ 최근 국내 제조업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부가가치 자체조달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부가가치 조달국은 일본에서 점차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음

· 1995~2011년 사이 한국의 최종수요에 대한 부가가치 중 국내에서 자체로 조달하는 비중은 62.8%에서 56.6%로 점진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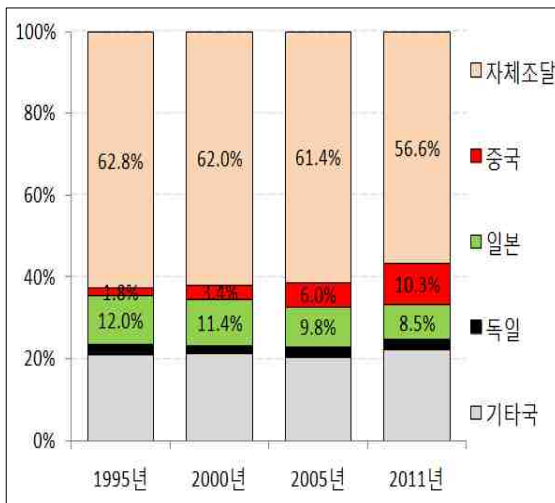
· 동기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2.0%에서 8.5%로 감소

- 제조업 분야별로 볼 때, 모든 제조업에서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1995~2011년 사이 섬유·직물 분야에서의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11.4%에서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2013년 기준으로 목재(17.1%), 화학(12.3%), 전기·광학기기(12.8%) 등 분야에서의 의존도도 높음

<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 > (%)



<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 > (%)

구분	1995	2000	2005	2011
섬유·직물	11.4	13.8	16.0	20.9
목재	2.7	4.2	8.9	17.1
석유	1.4	2.5	4.7	6.9
화학	1.3	3.6	6.3	12.3
고무·플라스틱	1.5	3.1	4.4	9.2
비금속광물	1.8	3.2	5.8	8.6
금속 및 제품	1.7	3.2	6.3	9.7
기계	1.1	2.1	3.7	8.7
전기·광학기기	1.6	3.8	7.6	12.8
수송기기	0.5	1.3	2.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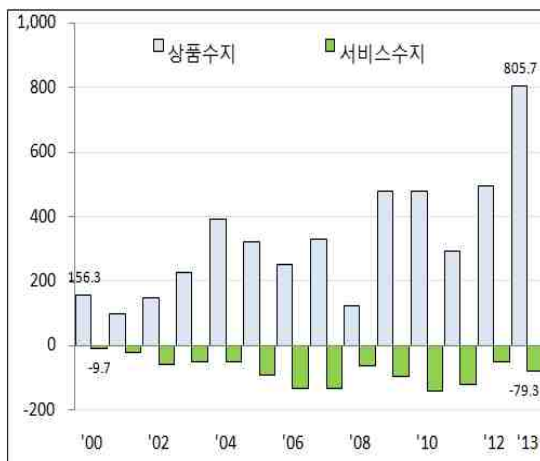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④ 對중국 여행수지 :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 중 약 70% 차지

○ 최근 중국은 국내 서비스 수지 개선에서도 가장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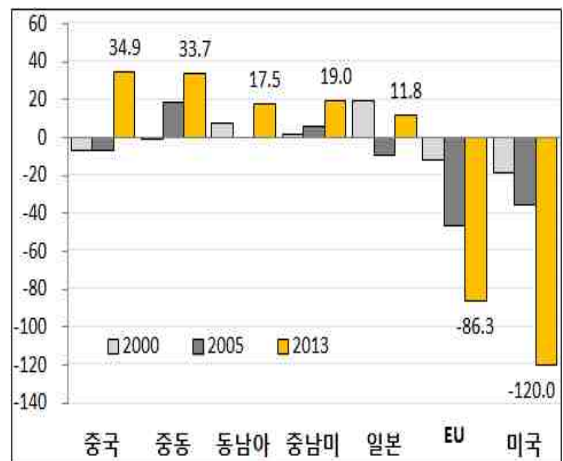
- 국내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는 흑자폭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는 적자 양상이 지속
  - 국내 경상수지는 2000년 104억 달러 흑자에서 2013년 799억 달러 흑자로 지난 13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약 17%씩 증가
  - 이 중, 상품수지는 동기간 156억 달러 흑자에서 806억 달러 흑자로 연평균 약 13%씩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하지만, 서비스수지는 동기간 9.7억 달러 적자에서 79.3억 달러 적자로 지난 13년간 적자폭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미국, EU에 대해 적자폭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흑자폭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임
  - 2013년 현재, 국내 서비스수지는 중국(34.9억 달러), 중동(33.7억 달러), 중남미(19.0억 달러) 등 순으로 중국과의 서비스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나타냄
  - 2013년 기준,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 34.9억 달러를 제외하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는 114.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 799억 달러의 14.3% 규모임

< 국내 상품 및 서비스수지 추이 > (억 달러)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기타수지.

< 한국의 對주요국 서비스수지 추이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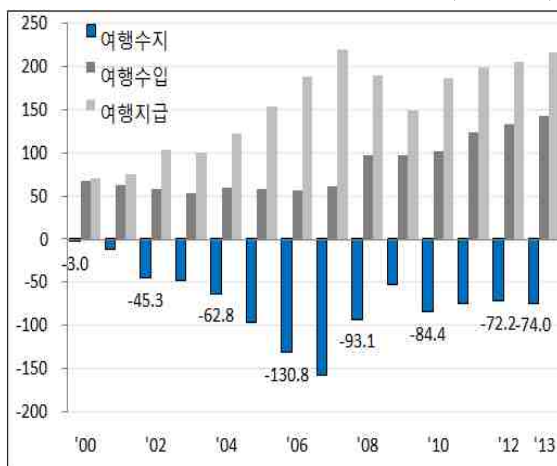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서비스수지=서비스수입-서비스지급.

○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부문에서 對중국 흑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에서의 對중국 의존성이 점진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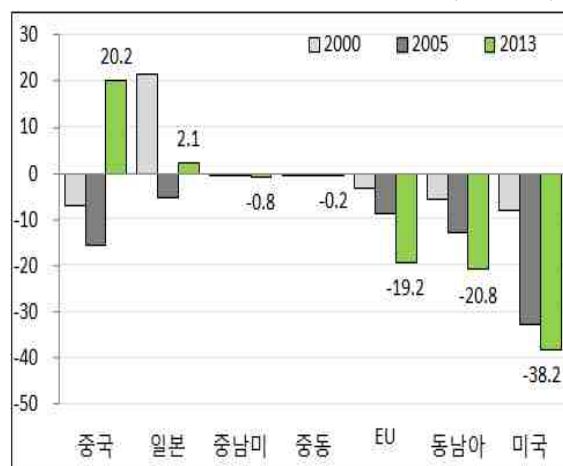
- 국내 여행수지는 지난 2000년부터 적자 양상이 지속
  - 국내 여행수입은 지난 2000년 68.3억 달러에서 2013년 142.7억 달러로 지난 13년간 연평균 약 6%씩 성장
  - 반면, 여행지급은 동기간 71.3억 달러에서 216.8억 달러로 연평균 약 9%씩 증가하며 고질적인 여행수지 적자 양상이 지속
-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여행수지 흑자 대상국은 중국, 일본이 유일한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최대 여행수지 흑자국으로 부상
  - 2013년 현재,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입은 약 41억 달러로 지난 1998년 약 3억 달러에 비해 14배 급증
  -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 2013년에는 20.2억 달러로 최대 흑자를 기록
  - 더욱이 2012~2013년 누적기준으로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 중 여행수지 흑자 비중은 약 70%에 이르는 등 향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sup>1)</sup>

< 국내 여행수지 추이 >  
(억 달러)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경원 재구성.  
주 : 여행수지=여행수입-여행지급.

< 한국의 對주요국 여행수지 추이 >  
(억 달러)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경원 재구성.

1)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의 각년도 자료에 따르면, 2002~2014년 까지 국내 관광산업이 GDP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약 2.0% 수준으로 세계 평균 2.8%에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4%대), 프랑스(4%대)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는 크게 낮은 수준.

⑤ 금융시장 유입 : 거주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 비중 33%,  
주식·채권 시장 내 중국자금 비중 27%

- 한국은 중국의 통화스와프 국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많으며, 최근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위안화 예금도 급격히 증가
  - 최근 한국은 중국과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뿐 아니라, 위안화 무역결제도 빠르게 확대
    - 한국은 2011년 10월 중국과 3,6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 쿼터를 재확대하며, 홍콩에 이어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 중 두 번째 수준에 이룸
    - 또한, 위안화 무역결제도 2013년 6월 75억 달러에서 2014년 6월 500억 달러로 증가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준
  - 더욱이 올해 한중 양국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하면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의 비중도 급증
    -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은 2014년 10월까지 잔액기준으로 미달러가 384억 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약 60%에 이룸
    - 반면, 동시점 위안화는 전체의 32.7%인 217억 달러로 지난 2011년 말 0.8억 달러(0.3%)보다 약 270배 급증

< 전세계 위안화 결제 현황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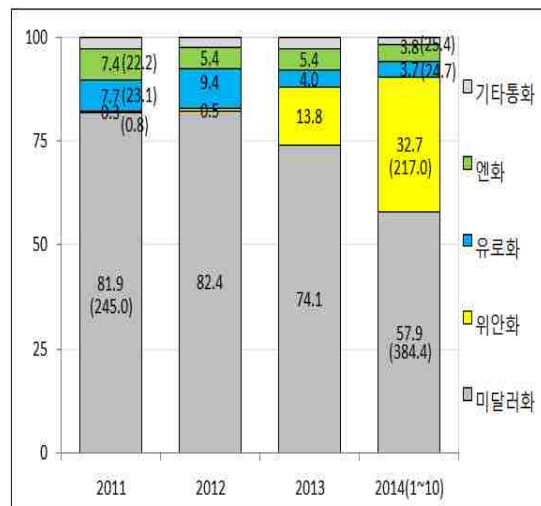
구분	2013년 6월	2014년 6월
홍콩	3,368(81.4)	5,846(73.3)
싱가포르	127(3.1)	604(102)
영국	238(5.8)	480(6.0)
미국	66(1.6)	229(2.9)
대만	79(1.9)	198(2.5)
프랑스	62(1.5)	116(1.5)
호주	26(0.6)	102(1.3)
독일	26(0.6)	53(0.7)
한국	8(0.2)	50(0.6)
룩셈부르크	29(0.7)	50(0.6)
합계	4,138	7,934

자료 : SMFT.

주 1. 중국 제외, 2 ( )는 전체 중 비중.

<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 비중 >

(%, 십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 )는 외화예금 잔액.

2) 중국의 위안화 통화스와프는 현재까지 홍콩 4,000억 위안, 한국 3,600억 위안, 유로존 3,500억 위안, 싱가포르 3,000억 위안, 호주 및 영국 2,000억 위안 순으로 높게 체결됨.

○ 한편,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 중국자금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

-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중국자금은 2014년 9월까지 잔액기준 약 24조원으로 전체 국내 투자국들 중 5위 수준
  -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중국자금은 2014년 9월까지 누적 9조 9,50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2.3% 수준
  - 동기간 누적 채권 보유규모는 약 13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13.9% 차지
  - 주식과 채권을 합한 규모는 누적 약 23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 미국(35.5%), 룩셈부르크(7.4%), 영국(6.8%), 싱가포르(5.0%)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
  
- 한편, 2014년 9월까지만 보면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 유입 자금 중 중국자금 비중은 약 27%에 달함
  - 올해 9월까지만 볼 때,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중국자금은 2조 36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자금의 약 24%를 차지
  - 국내 채권시장으로는 1조 1,890억 원 유입, 전체의 약 34% 수준
  -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체 외국인자금의 27.2%인 약 3조 2,250억 원이 유입

< 국내 유입 중국자금 현황(잔액) >  
(10억 원)

구분	보유규모	전체 국가중 비중	전체 국가중 순위
주식	9,952	2.3	10위
채권	13,698	13.9	2위
전체 (주식+채권)	23,650	4.4	5위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2014년 9월까지 잔액기준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보유액.

< 2014년 내 국내 유입 중국자금 현황 >  
(10억 원)

구분	전체 외국인자금(A)	중국(B)	B/A(%)
주식	8,338	2,036	24.4
채권	3,498	1,189	34.0
전체 (주식+채권)	11,836	3,225	27.2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2014년 중(1-9월), 상장주식 순매수 및 상장채권 순투자 규모.



## 2) 종합평가

-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 확대되고 있는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최근 중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
    - World Bank(2012)에 따르면, 2016~202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대, 2021~2025년에는 5.9%로 점차 하락 전망
    - 일본 21세기정책연구소도 2011~2020년까지 8%대 성장률을 유지하나, 2021~2030년에는 4.28%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은 중국경제의 중성장 시대 진입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
  - 더욱이 향후 중국 투자환경 여건 개선, 산업고도화,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 제조업의 산업공동화 확산 우려
    - 최근 타결된 한중 FTA가 국내 GDP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중국의 투자환경 개선 기대로 對중국 투자가 가속될 가능성이 확대
    - 이에 따라, 對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물류, 유통 뿐 아니라, IT 등 유망 산업의 대중국 투자가 가속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도 상존
  - 아울러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 등으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능력 저하가 향후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부가가치의 자체 창출 능력이 지속 향상
    -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기술향상 속도가 지연된다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약화로 향후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對중국 여행수지도 향후 중국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질적으로 중국 관광객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국내 관광인프라 향상이 지연될 경우, 국내 유입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도 상존

- 중국사회과학원(2012)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인구의 40%가 중산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중국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또, WEF(2013)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경쟁력은 지난 2007년 42위에서 2013년 25위로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일본(25위→14위) 등 관광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국내 금융시장도 원-위안 직거래, 국내 주식 및 채권 매입 급증 등 중국 위안화의 수요 증가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위안화 경제권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對중국 금융 의존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최근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통화스와프 확대 등으로 향후 국내 경제는 위안화 수요 증가로 인해 위안화 경제권이 빠르게 형성될 전망
  - 더욱이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자금은 전체 외국인 자금 중 30%에 이르고 있는 등 최근 국내 유입이 가속
  - 하지만, 최근 중국 후강통(滬港通)<sup>3)</sup> 출범 등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시스템 개선이 국내 유입 자금의 감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후강통(shanghai hongkong stock connect)이란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 후(沪)는 상하이를 의미하며, 강(港)은 홍콩을 말함. 다시 말해 상하이와 홍콩 증시를 동시에 상호 개방하여 투자자의 상대쪽 증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3. 시사점

- 최근 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극 활용하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
  - 첫째, 현재 발효 중인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적극 개발하는 등 국내 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동력 모색
    - 한중 FTA는 중국 내수 잠재력 확대를 통한 우리의 소비재 산업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 가능
    - 특히, 한중 FTA는 우리기업의 제품 가격경쟁력을 높여 對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바, 우리나라 산업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됨
    - 동시에, ASEAN 등 역내 post-china 신흥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對중국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노력도 필요
  - 둘째, 적극적인 투자규제 완화와 친기업정서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
    - 투자유치 정책 완화와 친기업정서 확산 등을 통해 상호 투자 촉진 및 기술장벽 해소 발판을 마련하여 산업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아울러, 우리도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육성하여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중국과의 협력을 교역 중심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산업인 해양, 환경 등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도 필요
    - 또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제도 등을 개선하여 상호간 산업 유대관계 강화 필요
  - 셋째,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 가속 등을 통한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 정부측면에서는 산업 인프라시설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뒷받침 필요

- 기업측면에서는 원천기술 부문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
  -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산화 전략 마련 필요
  - 특히, 對중국 부품 등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은 혁신능력 제고뿐 아니라, 부품 개발 인프라 개선 등 중간재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 넷째, 국내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다양화 등을 통해 중국뿐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입을 더욱 촉진
-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여행수지 흑자 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 EU,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인프라 구축 필요
  - 특히 오락, 레저, 휴양 등 고소득층 대상의 고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의료, MICE<sup>4)</sup> 관광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 다섯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안화 교환편이성 제공 등으로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 기회 적극 활용
-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원/위안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한편, 한중간 금융협력회의 상설화 등 정기적인 양국 간 금융협력체제 강화하여 對중국 무역 거래 비용 절감 효과 활용 가능
  - 국내에서의 위안화 교환 편이성 확대, 관광산업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인을 지속하여 대규모 레저 및 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 투자 활성화 활용도 모색

경제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4)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네 분야를 포괄하는 관광 서비스 산업.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1월 27일	12월 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24	2.23	-0.01%p
	엔/달러	85.86	98.51	105.04	117.71	119.78	2.07¥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467	1.2379	-0.0088\$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828	17,900	72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7,249	17,887	63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11	2.16	0.05%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98.4	1,115.2	16.8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82.1	1,986.6	4.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1월 27일	12월 4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73.78	66.73	-7.05\$
	Dubai	107.99	100.38	107.88	73.33	66.95	-6.38\$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67.30	253.70	-13.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